

주식 열풍 2007, 광주·전남은 '미풍'

투자자 수 16만명...전국의 5% 불과 1인당 3,500주 보유...30, 40대 주류

지난해 국내증시의 급등으로 전국적인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광주·전남은 미풍만 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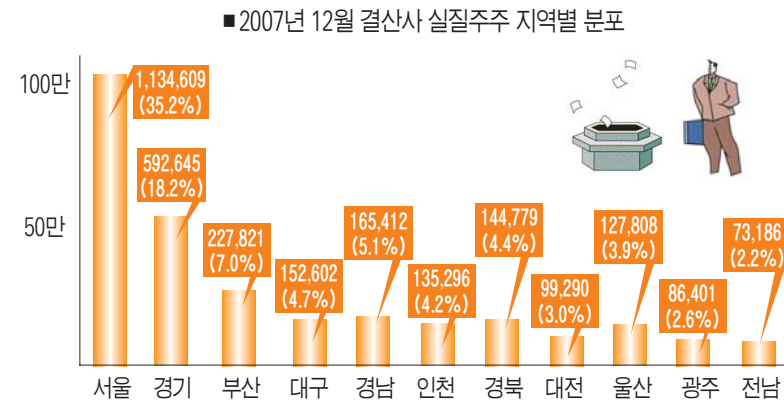
이 지역 주식투자자 수는 전체의 5%를 밑돈다 대부분 소액투자자였으며, 광주는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주식투자자 수가 가장 적었다.

그나마 지역별로는 광주 북구와 여수시민들이,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가 주식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유가증권, 코스닥 등 장내·외 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주주 수가 1천125만명

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복투자자를 제외한 실제 투자자는 364만명으로, 2006년(305만명)에 비해 19.4% 늘었다.

광주·전남도 지난해 실제 투자자가 15만9천587명에 달하면서 2006년(14만361명)보다 13.7% 증가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1인당 평균 소유주식 수가 3천581주로, 1년 전보다 5.24% 감소하면서 소액 투자자의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전반적인 투자자 증가 속에서도 전체 투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그쳤다. 광주는 전체의 2.6%인 8만6천 401명으로 광역시중 최하위를 기록했



다. 전남도 2.2%인 7만3천186명으로, 충북(2.1%), 강원(1.5%), 제주(0.6%) 등을 제외하면 주식투자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주식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 지역 내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투자에 비해 부동산 등을 통한 재테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경우 투자자의 비중이 전체의 35.2%(113만4천명)에 달할 만큼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기 18.2%(59만2천명) ▲부산 7.0%(22만7천명) ▲경남 5.1%(16만5천명) ▲대구 4.7%(15만2천명) ▲경북 4.4%(14만4천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광주·전남 투자자의 지

역별 분포는 광주 북구가 2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서구(2만207명) ▲여수(1만6천309명) ▲광주 광산구(1만5천908명) ▲순천(1만3천694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만4천869명으로 광주·전남 투자자의 34.4%에 달했으며, 30대 24.2%(3만8천478명), 50대 21.1%(3만3천724명), 60대 9.3%(1만4천892명) 등의 순이었다. 또 남성 투자자는 9만9천810명으로 62.6%를 차지했으며, 여성 투자자도 38.5%(5만9천692명)에 달했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이른바 '큰손'들 대부분이 몰려있어 지방의 투자규모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투자자 수는 늘었지만 1인당 보유주식 수는 감소하는 등 소액 투자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승례문 화재로 본 문화재 보험가입 실태

'국보 1호' 고작 9,500만원

83호 금동반가사유상 500억 최고

'국보 1호' 승례문(남대문)이 전소(全燒)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의 보험 가입 실태가 관심을 끈다.

11일 보험업계와 문화재청, 서울시 등에 따르면 승례문의 보험 가입금액(손실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고작 9천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리주체인 서울 중구청을 대신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연간 보험료 8만3천120원을 내고 보험금 9천508만원의 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국보 1호의 가치가 서울 번두리의 20평 아파트 한 채 값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이날 문화재청이 추산한 승례문 복원 비용 200억원의 '200분의 1'도 못 되는 액수다.

이는 승례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제 건축물로서 가치만 따졌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최고 보험가 기록을 지닌 문화재는 국보 83호인 금동반가사유상으로 알려져 있다. 96년 미국 애크랜드올림픽 문화교류전에 출품하면서 가입금액 500억원에 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는 98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특별전에 출품된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이 300억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물가·금융 불안... 소비가 묶인다

내수 증가 수출 호조 등 경제 상승 기조는 유지

재정경제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가 상승세 확대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11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유지되고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등 그간의 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기 상승의 근거로 12월 산업생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비스업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으며 소비자대지수가 9개월 연속 기

준치인 100 이상을 유지한데다 1월 소비재판매 속도지표도 양호하다는 점을 들었다.

12월 설비투자추계는 기계류 및 운수장비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됐고 1월 수출도 전년 동월비 17% 증가한 328억6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등 내수증가에 힘입어 2007년 2.4분기 이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재경부는 다만 "유가 상승, 미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 하방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경기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면서 경제 불안요인을 면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2008년 2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견실한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 및 높은 물가 상승세가 부분적으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봄나물 향기 속으로

봄나물 등 봄나물을 값싸게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점장 구수희) 지하 1층 매장에서는 봄 입맛을 돋워주는 봄나물·달래·쑥·두릅·취나물 등 봄나물을 값싸게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급락 글로벌 증시 국내 주가 직격탄

어제 코스피 55포인트 하락

설 연휴기간 글로벌 증시의 급락 여파로 반등 조짐을 보이던 국내 주식시장이 닷새 만에 폭락했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직전 거래일(5일) 대비 55.90포인트(3.29%) 급락한 1,640.67로, 코스닥지수는 12.41포인트(1.93%) 떨어진 629.94로 마감했다.

설 연휴기간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뉴욕증시가 3.59% 급락하고 일본과 홍콩, 인도 등 아시아 증시가 6~7%대 폭락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는 지난 달 31일 이후 반등폭의 절반 이상을 반납했다.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매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쳐 38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으며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1

월 비제조업(서비스업) 지수도 41.9로 전월 54.4 대비 급락했다.

주요 경제지표의 악화로 인해 미국의 경기침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경제가 침체 수준을 넘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미국발 한파가 글로벌 증시를 얼음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공세도 재차 강화됐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 정규주 마감 기준으로 각각 4천994억원 순매도를 기록한 반면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941억원, 729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외국인과 더불어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자산운용사가 1천103억원 순매도로 돌아선 것도 수급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美 경기침체 우려 불구 한국 예상 성장률 유지"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국내 13개 증권사와 9개 경제연구소, 해외기관 2곳이 제시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평균 추정치는 5%로 작년 말과 같았다.

한국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유가상승 등 대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작년 4.9% 성장에 이어 올해도 5% 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한국경제가 중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연 6%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다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4.4%에서 올해 4.5%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3.3% 상승에서 3.1%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법인세 인하는 선택 아닌 생존 문제"

인수위 최경환 의원... 단계적 감세로 충격 흡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위원인 최경환 의원은 11일 "법인세 인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 "전세계가 법인세 인하경쟁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현행 법인세를 25%를 향후 5년간 매년 1%포인트 낮춰 20%로 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는 또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 공약에 대해서는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맞게 통신업체들이 요금인하를 시작했다"며 "향후 1~2년 이후에 휴대전화 요금 20~30%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삼성전자서비스(주)GCA광주캠퍼스	삼성전자서비스 A/S엔지니어 교육생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4	062-971-4640
(주)HRN	월185만/SKT7서부지사실내디자인 관련 남직원	대졸/경력무관	2200~2400	02/13	062-529-2671
한국인포데이타(주) 전남본부	광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4	062-360-0503
(주)대창 E&T	개통업무/회계 및 관리 업무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5	062-383-6831
월드부페	이벤트행사 및 출장연회 담당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5	062-251-7800
(주)인코리아	정규직 사원모집(식품연구개발/사육관리/생산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7	061-330-4523
서양기계공업(주)	2008년 사원(기술연구소/단순노무직/생산관리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7	062-960-5012
(주)신일모터스	자동차 판매영업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8	062-384-8337
(주)빅미트	매장관리직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2/19	062-650-2203
동양생명보험(주)	2008년 자산관리사 공채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0	062-226-4904
미루	(웨딩업체)광주지역 지점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0	062-973-8009
(주)광주과학	과학기자재 영업 및 거래선 관리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62-525-1155
(주)한국정보	SK텔레콤 한국정보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2/25	062-528-4400
AIG손해보험	(AIG순천 CS센터)제7기 인바운드 상담원(CSR)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061-906-763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삼성전자

대학생, 5년째 선정... 국민은행·대한항공 順

삼성전자가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뽑혔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11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2천205명을 대상으로 13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10개사로 구성된 130개사 가운데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설문한 결과 삼성전자가 1위로 뽑혔다. 삼성전자는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래 5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2위는 국민은행, 3위는 대한항공이 각각 차지했다. 유한킴벌리, 포스코, CJ, 아시아나항공, SK에너지,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등이 상위 10위에 들었다. /연합뉴스